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Strategies for Risk Management of Agricultural Business in Agricultural Companies

김철호**

Cheol Ho Kim

Abstract

As agricultural companies encounter number of risks in their business,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risks for their stable management. So we examine the agricultural business risks and propose the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agricultural companies.

For these purpose, we analyze the agricultural business risks with which agricultural companies are confronted, and propose the agricultural companies' the risk management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hanging the risk environment of agricultural business, we hav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risks and risk management in it. Second, When we choose the risk management strategies which are risk retention, risk avoidance, risk control, risk transfer and insurance, etc., we should always consider the frequency of loss and the severity of loss. Third, If we don't control the agricultural risks, we will be in a position to very difficult situation. So, Agricultural companies should lead to stronger effort to manage the risks for their stable business.

* 이 논문은 2010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무역학과 부교수. e-mail: kch@gntech.ac.kr

주요어(key words): 농업경영(Agricultural Business), 농업경영체(Agricultural Company), 위험(Risk), 위험관리(Risk Management)

1. 서론

오늘날 농업경영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도 그 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경영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생산기술의 변화, 농업설비의 자동화 등 시설투자 확대 및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로 인한 유통·판매의 불안정,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나 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판매환경의 변화, 농업관련 법률, 정책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경영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농업의 산업화에 따른 농업생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위험발생요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과정에서 농산물 생산실패에 따른 생산위험, 생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위험, 정부정책이나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적 위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 경영자 등의 안전사고에 의한 인적 위험, 손해배상책임위험 등 농업경영체의 내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대외 시장개방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의 증대 및 위험발생요인의 다양화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는 농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관리를 실패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강태훈(2001)은 농산물 가격 위험관리수단으로서 발매기 거래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병일 & 김정호(2001)는 채소농가의 위험요인과 채소재배면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윤진한(2001)은 채소농가의 소득변동 요인을 16개 사례로 나누어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김정호, 김창길, 안병일, & 전익수(2002)는 채소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재환, 박준형, & 김태균(2005)은 과수 주산지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위험실태와 요인,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권오상(2002)은 Kumbhakar의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쌀 농가의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영만, 이상건, & 김성용(2007)은 쌀 재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별 쌀 농가들의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관리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성용, 이상건, & 이영만(2008)은 쌀 생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경제적 위험요소, 사회·개인적 위험요소, 환경적 위험요소, 제도적 위험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험요소와 관련한 태도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황의식 & 이용호(2008)는 전업농가의 농업경영위험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의 경우 채소, 과수, 쌀 등 특정작물을 중심의 위험분석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경영위험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연

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의 관점에서 위험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을 수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들 위험을 농업경영체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위험 관리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 농업기술원 농업경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경영관련 전문가 1인과 과수 및 특용작물을 생산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각 1인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경영관련 전문가와 1차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분류 및 내용을 체계화한 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들이 각 위험에 대한 발생빈도 및 위험발생 시 농업경영체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의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내용을 기초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관련 위험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제2장 위험관리의 일반적 고찰에서는 위험과 위험관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위험 분석에서는 우선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농업경영위험을 유형화한 후, 농업경영위험 관리방안과 선택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농업경영관련 전문가 및 농업경영인과의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위험을 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실의 강도에 따라 평가하여 적절한 위험관리방안과의 상

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농업경영위험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체의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와 더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위험관리에 관한 고찰

2.1. 위험의 개념

위험(risk)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분야의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그러나 위험(risk)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Hardaker, Hurine, & Anderson, 1997), 불확실성은 지식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위험은 의사결정 순간에 있어서 불완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Huirne, 2002). 특히 위험은 원하지 않는 것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험관리는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 위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① 인간의 반응과 경험에 비추어 불 때에만 의미있는 심리현상(손해의 불확실성), ② 개인이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 및 각각의 결과의 발생 가능정도를 알고 있을지라도 결과발생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의혹(주어진 상황에서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의혹), ③ 경제적 손해발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④ 실질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예측된 것과 달라지는 경향(미래예측의 불가능성), 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⑥ 손해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이익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우발적 사건의 발생, ⑦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⑧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 ⑨ 불이익한 사건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⑩ 원치 않는 사건발생에 대한 객관화된 불확실성, ⑪ 비용, 손해 또는 손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⑫ 위태로움의 복합적 결합, ⑬ 분산개념의 대상, ⑭ 사건의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가 현저하게 다를 객관적 확률 등을 들 수 있다(박은희 & 정영동, 2002).

(Meuwissen, Huirne, & Hardaker, 1999, 2001; Huirne, 2002).

이러한 위험은 크게 손실의 가능성(possibility of loss) 내지 손실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loss)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연성이라는 요소와 손실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연성의 요소란 우리가 사고발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실의 요소란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 즉 손실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낙현 & 김흥기, 2008).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첫째 위험은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시기의 실제결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결과를 오차 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보다 좁은 의미에서 위험을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셋째, 손해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넷째, 사고발생의 조건, 사정, 상황 등의 환경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란 결과의 불확실성, 사고발생의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다(구하서 & 권금택, 1995).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험은 계획력, 조직력, 지도력, 통제력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거나 이를 충분하게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정재환, 2003).

2.2. 위험관리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조직과 개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Rejda,

2003), “우연한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논리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Dorfman, 1998), “기업의 자산과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김용재, 1996), “기업경영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미래 지향적, 체계적, 합리적, 통합적 방식으로 관리하여 기업목적을 달성하는 경영기법”(최경환 등, 2004),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나 조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 분석하고 그러한 위험을 처리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한낙현 & 김흥기, 2008)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기업이나 조직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연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발견하여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2.3. 위험관리 프로세스

위험관리는 우연한 위험으로 인하여 조직에 초래하는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위험 인식, 위험 평가, 위험관리수단의 선택, 위험관리 계획을 실행 및 검토라는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된다.

2.3.1. 위험의 인식

일반적인 기업위험으로는 재산적 손실위험, 법적 배상책임위험, 기업 경영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위험, 경영자 및 종업원의 부상에 따른 손실 위험, 그리고 사기 및 범죄 등 종업원의 부정직에 따른 손실위험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을 인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위험관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어떤 위험의 존재를 인식 또는 확인하지 못할 경우 위험을 처리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2.3.2. 위험의 평가

위험을 확인한 후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거나 유효하게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위험의 평가에는 손해가 발생할 확률(손실의 빈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손실의 강도)을 파악하는 것과 예상기간 내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즉, 인식된 각각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심각성, 금전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의 정도, 그리고 이들 위험의 예측가능 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3.3. 위험관리수단의 선택

위험이 확인되고 평가되면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위험관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방법으로는 크게 위험통제(risk control)와 위험재무(risk finance)를 통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위험통제는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불행하게도 위험이 현

실화한 경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통제방법으로는 위험의 회피와 손실통제가 있다. 그리고 위험재무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방법으로 위험의 보유나 보험 등을 통한 위험의 전가를 들 수 있다.

첫째, 위험회피(avoidance)란 특정 손실위험을 결코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손실 위험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험회피는 손실위험을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는 활용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또한 농업경영체가 경영활동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수 있다.

둘째, 손실통제(loss control)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 영향을 주어 위험의 구조, 즉 위험의 발생빈도와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위험관리방법이다. 손실통제의 방법으로는 손실예방(loss prevention)과 손실축소(loss reduction), 다각화(diversification), 헷징(hedging) 등의 방법이 있다.

손실예방은 사전적으로 손해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품질통제 검사, 안전규칙의 엄격한 시행, 생산 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손실축소는 사후적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일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손실의 강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난 경보시스템의 설치, 적절한 손실경감조치 등의 방법을 말한다. 다각화(diversification)는 손실노출의 위험이 있는 요소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작목의 다양화, 유통·판매루트의 다각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헷징(hedging)은 인위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특정위험에 노출된 자산이 이익 및 손실 가능성을 갖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하여 반대의 효과를 갖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이익의 크기와 손실의 크기를 동시에 축소하는 것으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헷징의 예로는 선물거래와 선도거래를 들

수 있다.

셋째, 위험보유(retention)란 위험을 보험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보유는 손실발생빈도나 손실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위험통제가 아닌 위험 재무적 관리방법이다.

넷째, 보험(insurance)은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만일 약정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손해보상계약이다. 그러므로 위험에 노출된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보험자는 다수의 피보험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으로 손해를 다각화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비보험 이전(non-insurance transfer)은 보증계약 또는 임차계약 등을 통하여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위험재무방법이다. 이는 보험에 부보할 수 없는 경우에 잠재적 손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농산물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제3자의 보증 등을 들 수 있다.

2.3.4. 위험관리의 실행 및 검토

위험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데, 특히 위험관리 비용, 안전프로그램, 손실예방과 관련된 활동은 주의깊게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실발생 빈도와 손실의 강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손실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관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농업경영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평가한 후, 위험관리수단을 선택하여 위험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첫째,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은 농업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생존과 관련한 모든 잠재적 위험의 근원을 규명하고, 농업경영관련 위험의 발생결과를 측정하여 관리대상위험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경영관련 위험의 분석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원인 규명, 발생형태, 발생강도와 규모의 측정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난 후, 농업경영관련 위험들이 농업경영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평가 과정에서는 잠재적 손실발생 빈도와 손실의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험의 평가는 위험의 측정결과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순위에 따라 관리대상 위험을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관련 위험의 발견과 평가 및 관리대상 위험을 결정한 후, 다양한 위험관리방안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관리비용과 위험관리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최적의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경영위험 관리비용과 위험관리방법을 비교, 검토한 후에 어느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농업경영관련 위험관리계획의 실행은 위험관리의 총괄적인 단계로서 잠재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손실 크기 및 영향 평가의 명확한 분석, 그리고 최적의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였는가에 대한 각 단계별 및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의 위험관리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위험 분석

3.1. 농업경영위험의 의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생산위험, 기술적 생산위험, 생산요소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위험,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유통·판매위험, 정부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위험, 이자율의 변화나 현금 유동성의 문제로 인한 재무적 위험, 그리고 농업경영인의 인적 위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과 관련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은 의사결정순간에 있어서 불완전성, 원하지 않는 것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Huirne, 2002). 따라서 농업경영위험이란 농업경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갖지 못하여 외부경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농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화와 더불어 전문화,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농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험발생요인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2. 농업경영위험의 유형

농업경영위험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石名坂邦昭(1990)

는 농업비즈니스와 관련한 위험을 생산·기술적 위험, 시장·가격 위험, 산업과학적 위험, 법적·사회적 위험 및 인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안병일 & 김정호(2000)는 농업경영관련 위험으로 생산위험, 가격·시장위험, 제도적 위험 및 인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산위험은 기온, 일조량, 풍수해, 강우량, 병충해 등 자연적 요소와 생산기술의 변동 등 기술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김정호, 김창길, 안병일, & 전익수(2002)는 농업의 불확실의 요인으로 생산위험, 가격 내지 시장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자원위험 및 금융적 위험을 들고 있다.

Huirne(2002)은 농업관련 위험을 생산위험(production risks), 시장 및 가격위험(market and price risks), 제도적 위험(institutional risks), 인적 위험(human or personal risks),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의식 & 이용호(2008)는 위험의 발생요인에 따라 생산위험, 가격 및 시장위험, 재무적 위험, 제도적 위험 및 인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영향의 크기에 따라 통상위험과 거대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성용, 이상건, & 이영만(2008)은 경제적 위험, 사회·개인적 위험, 환경적 위험, 제도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제적 위험에는 농업 경영의 불확실한 경제적인 결과에 노출될 위험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시장·가격 위험, 생산위험, 농가가계수지 또는 채무와 관련된 위험, 유통·판매와 관련된 위험,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 위험은 농업생산이 자연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생산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업경영과 관련된 공통적인 위험으로는 생산위험(생산 및 기술적 위험), 시장 및 가격위

험, 제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인적 위험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위험으로 산업과학적 위험, 사회·개인적 위험 및 환경적 위험을 들 수 있다.

〈표 1〉 농업경영 위험유형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생산	시장·가격	제도	재무	인적 자원	기타
石名坂邦昭 (1990)	생산 및 기술적 위험	시장 및 가격위험	법적· 사회적 위험			산업과학적 위험
Huirne (2002)	생산위험	시장 및 가격위험	제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인적 위험	
안병일 등 (2000)	생산위험	시장 및 가격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김정호 등 (2002)	생산위험	가격 내지 시장위험	제도적 위험	금융적 위험	인적 자원위험	
황의식 등 (2008)	생산위험	시장 및 가격위험	제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인적 위험	
김성용 등 (2008)	경제적 위험1) (생산위험, 시장/가격위험, 유통/판매 위험, 재무적 위험, 제도적 위험 포함)					사회·개인적 위험, 환경적 위험

이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생산위험(production risk)은 생산·기술적 위험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생산과 관련하여 자연적인 요인 및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기후조건, 종자의 유전학적인 특성, 병충해의 발생 등 자연적 조건과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시설의 도입, 신제품개발 등 기술적인 요인 등으로 농업경영체가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농업생산이 자연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생산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환경적 위험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김상용, 이상건, & 이영만, 2008), 이러한 환경적 위험은 자연적 생산위험에 포함시

키고자 한다.

그리고 생산기술과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石名坂邦昭(1990)은 생산·기술적 위험을 농업생산물의 성장부족이나 병충해 발생 및 농업기계,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 정의하고 또한 산업과학적 위험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술적 위험은 다른 연구자들이 분류한 기술적 생산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과학적 위험은 하이테크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및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따른 위험을 의미하므로 역시 기술적 생산위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산위험을 순수 자연적 조건에 의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연적 생산위험과 생산에 따른 기술부족, 생산시설이나 기술의 미도입 내지 생산기술 변화에 부적응, 품종선택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따른 기술적 생산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가격 및 시장위험(price or market risk)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기호, 상품의 품위, 시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 및 수요량 변화, 수입물량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가격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농산물의 장기적 변동은 시장에서의 수요동향에 대한 적절한 정보수집의 실패에 의해 발생한다(石名坂邦昭, 1990). 이러한 가격 및 시장위험은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경영체가 통제할 수 없는 순수 시장위험과 농업경영체의 농산물 시장유통과 관련한 유통·판매루트별 가격변동, 판매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 등 가격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위험(institutional risk)은 법적·사회적 위험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조세제도 변경, 지원제도 변경 등 농업관련 법률·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石

名坂邦昭(1990)은 법적·사회적 위험을 일부 곡물 등 선물계약과 관련한 법적 위험, 농지 임대차등과 관련한 계약위험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등의 사회적 위험, 정부의 가격정책이나 조세정책, 환경정책 등 농업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변화 등과 관련한 위험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넷째,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과 관련하여 금융적 위험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경영체가 안고 있는 유동성 문제와 관련한 위험을 말한다. 즉, 최근 들어 농업경영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추구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경영체의 자본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위험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상의 애로나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유동성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다섯째, 인적 위험(personal risk)은 인적 자원위험, 사회적·개인적 위험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경영인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농업경영인의 경험적 지식, 참여도, 태도, 자질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것(김상용, 이상건, & 이영만, 2008),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농업 외의 진로선택은 농업의 장기육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적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위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안전사고로 인한 순수 인적 위험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위험으로 구분한다. 즉, 농업생산 외적으로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의한 인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농업경영체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가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구분한다.

여섯째, 책임위험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위험 속에 포함되어 있

는 법적·사회적 위험으로(石名坂邦昭, 1990)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위험으로 생산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선물계약에 따른 책임문제, 농지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한 책임문제 그리고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한다. 면담조사 결과,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농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체의 결성 및 공동운영을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농업경영인에 대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책임관련 위험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위험과 관련하여 농업경영관련 제도 및 정책변화 등에 따른 위험을 순수 제도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선물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계약관련 손해배상책임 및 타인의 채무보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책임위험으로 구분한다.

〈표 2〉 농업경영위험의 분류

	주요 위험	주요 내용
생산위험	자연적 생산위험	• 기상이변 등 자연적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
	기술적 생산위험	• 병충해 방제, 약해 등에 의한 생산위험 • 품종선택에 따른 생산차질 위험 • 생산기술 변화 부적응에 따른 손실위험
가격 및 시장위험	가격위험	• 가격변동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 • 판매대금 미회수 등에 따른 손실위험
	순수 시장위험	• 시장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제도적 위험	순수 제도적 위험	• 법률이나 제도, 정책변화에 부적응에 따른 손실위험
재무적 위험	유동성 위험	•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험 • 예상소득 미획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인적 위험	순수 인적 위험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도덕적 위험	•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
책임위험	손해배상책임위험	• 생산물관련 손해배상책임위험 • 제3자 보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험

3.3. 농업경영위험관리 방법선택

위험관리방법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농업경영체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영환경과 관리위험의 특성에 따라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방법의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되고 평가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요구되나, 위험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통제방안을 강구하여 위험을 전가하거나 보유하게 된다(위험 보유 시 위험관리는 종결됨). 그리고 위험통제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위험의 발생원인을 제거하여야 하는데(완전 제거 시 위험관리 종결),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위험은 2차적으로 보험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위험관리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게 된다. 농업경영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농업생산을 포기하거나 계약생산을 통해서 제3자에게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전가시키면 위험관리는 종결된다. 그러나 농업경영위험이 회피나 전가가 불가능한 경우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하여 위험관리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편익이 더 큰 경우 위험통제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농업경영위험은 농업경영체의 외부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험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위험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위험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은 부분 가능한 위험과 부분불능위험으로 구분하여 위험관리방법이 결정된다. 부분 가능한 위험은 보험관리방법을 선택하고, 부분 불가능한 위험은 적극적인 보유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위험관리의 목표에 따라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위험관리목표에 따라 적절한 위험

관리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목표가 위험의 예방과 방지를 추구하는가 또는 위험의 사후관리방법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통합적 위험관리와 방어적 위험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적 위험관리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관리전략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전가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방어적 위험관리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보다는 위험이 발생한 후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위험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방어적 위험관리는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데 적합한 전략이지만, 회피방법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주체와의 거래를 포기함으로써 가격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나, 판매시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위험관리 비용에 따라 위험관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위험관리 역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관리 비용을 통한 분석방법으로는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이때 보험료, 보험금액, 담보범위, 담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넷째, 손실빈도(frequency of loss)와 손실강도(severity of loss)를 기준으로 한 매트릭스분석을 통하여 위험관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손실빈도는 특정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발생 건수를 말하고, 손실의 발생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규모를 의미한다.

손실빈도와 손실강도의 크기에 따라 위험의 등급이 정해지고 이 등급에 따라 위험관리 방법을 선정한다. 위험의 발생빈도와 손실강도의 크기에 따라 적정관리방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손실빈도	높음	손실통제	위험회피 또는 전가
	낮음	위험보유	보험
		낮음	높음
손실강도			

〈그림 1〉 손실빈도와 손실강도, 위험관리방법과의 상관관계

발생빈도와 손실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위험은 가능하면 위험회피나 위험전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발생빈도와 손실강도가 낮게 표시된 위험은 위험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발생빈도는 높고 손실강도가 낮은 위험은 위험통제를 통하여 관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발생빈도는 낮고 손실강도는 높은 위험은 보험을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 적합한 위험관리방법이 될 수 있다.

가령 농업경영관련 위험 중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위험은 다른 위험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으나, 동시 다발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강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4. 농업경영체의 경영관련 위험분석

실무현장에서의 인지하는 농업경영관련 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도 농업기술원 경영정보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인과 과수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각 1인과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농업경영인들은 1차 농산

물 및 가공상품을 생산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를 수행하는 등 농업경영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라 할 수 있다.

면담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농업경영위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생산위험, 시장 및 가격위험, 제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인적 위험 및 책임 위험 등을 분류한 후, 우선 농업경영 전문가와 1차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한 후, 2차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농업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농업경영관련 위험의 발생원인과 발생빈도, 위험발생 시 농업경영체에 미치는 손실의 강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험발생 빈도, 즉 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① 거의 없음, ② 약간 있음, ③ 있음,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등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손실의 강도에 대해서도 ① 영향이 거의 없음, ② 약간의 영향 발생, ③ 부분적인 영향 발생, ④ 중대한 영향 발생, ⑤ 심각한 영향 발생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심층면담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위험의 경우 자연적 생산위험과 기술적 생산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생산위험은 최근 들어 이상 기후현상으로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방법 및 작목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험발생빈도는 약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실강도는 부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술적 생산위험은 대체적으로 생산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만, 생산방법이나 작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선택한 종자나 묘목과 다른 품종으로 나타나 생산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시설재배의 경우 온도나 습도조절 등의 조작실

수로 인한 손실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발생빈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손해강도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가격 및 시장위험은 순수시장위험과 가격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시장위험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으로 이는 자연적 생산위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자연적 생산위험과 더불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1년생 작물, 특히 채소작물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순수시장위험은 자연적 생산위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은 약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실의 강도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가격위험은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나 대금결제 지연, 가격인하요구 및 대금 미회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생산량과 유통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나, 대체적으로 유통·판매루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유통루트 및 품목, 특히 저장성 가능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대량 유통되는 시기에 가격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농업경영체의 시장교섭력 열세로 인하여 자가 브랜드 대신 PB브랜드로 납품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경우에 납품가격의 인하 압력 등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별수요자와 거래, 특히 중간 밴더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 미회수, 대금결제지연, 판매 후 부당한 대금인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포전거래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유통루트보다 위험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계약이행기에 거래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 처

할 경우 사전에 체결된 계약대로 이행하기보다는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개별수요자, 특히 중간 밴더와 거래 시 결제지연, 가격인하요구 등의 위험발생빈도는 조금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해강도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포전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해의 강도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제도적 위험은 농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는 농업경영체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위험요소이다. 그러나 농업경영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체가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금리가 변동(상승)하는 경우에 타인자본으로 투자를 많이 한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경영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위험의 발생빈도는 조금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손실강도는 상당히 높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재무적 위험의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예상했던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생산시설투자에 따른 채무과다 금융비용 및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들 수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고령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보다는 연령대가 낮은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에서 이러한 재무적 위험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농업경영인들의 경우 생산시설의 규모화 추구 및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자동화 추구 등 시설확충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재무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위험 발생빈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실강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인적 위험의 경우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수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순수 인적 위험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도덕적 위험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인적 위험의 범주에 질병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농업경영인의 질병문제는 농업경영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어 농업경영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적 위험 역시 연령대가 높은 고령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기계작동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약간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젊은 연령대의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사고보다는 교통사고 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도덕적 위험은 특히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최근 들어 발생빈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만약 위험이 발생할 경우 손실 강도 면에서는 농업경영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째, 책임위험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위험으로 생산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선물계약에 따른 책임문제, 농지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한 책임문제 그리고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경우로는 제3자를 위한 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들 수 있다. 보증으로 인한 위험 발생빈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만약 위험이 발생할 경우 손실강도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농업경영위험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보유, 위험전가 및 보험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1. 생산위험

농업경영체의 생산과 관련한 위험은 자연적 조건에 의한 생산위험과 기술적 요인에 의한 생산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 조건에 의한 생산위험의 경우 최근 들어 이상 기후현상의 발생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그 위험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이러한 자연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손실 강도도 크게 평가된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위험은 사전에 부분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손실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사전적인 손실통제를 위한 조치와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방법을 통한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생산기술요인과 관련한 기술적 생산위험의 경우 최근 생산기술의 이전 및 보급 등으로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손실의 강도는 심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농업경영인 스스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기술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생산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어떤 농업경영체가 묘목을 구입한 후, 수년이 지나 수확시기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품종으로 판명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종자나 묘목을 구입할 때 종묘회사 등 원자재 공급업자와 사후적 손실에 대비하여 피해보상 등을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

4.2. 가격 및 시장위험

가격 및 시장위험은 순수시장위험과 가격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시장위험은 시장개방 등 대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지만 이는 자연적 생산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순수시장위험은 특히 채소작물과 같은 1년생 작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시장위험은 개별 경영체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위험이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산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며, 특히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격위험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루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위험으로, 이는 농업경영체의 가격협상력의 열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격위험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자가 브랜드의 미활용,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손실위험, 가격인하 압력 및 판매대금 인하 압력 및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첫째, 농업경영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하여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들 수 있다.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물량확보, 브랜드관리를 통한 가격변동위험을 해소하거나 시장접근에 따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투입재 및 생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계약을 통하여 생산할 경우, 농업경영체는 투입재를 공급받고 수수료는 받기 때문에 투입재 및 생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특정 부문에 전문화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가격변동위험과 시장출하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협약(marketing contract)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통협약은 농가가 투입재를 구매하여야 하므로 생산계약과는 달리 생산위험뿐만 아니라 투입재 가격변동위험도 존재하지만, 가격변동위험과 시장출하위험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황의식 & 이용호, 2008).

넷째, 선물거래를 통하여 가격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농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나 규모화를 추진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공동출하 내지 판매전략을 추진할 경우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격위험의 경우 유통 및 판매루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는 자신의 경영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통·판매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거래규모를 분할함으로써 유통·판매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장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유통·판매루트를 선택하거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금결제 지연이나 미회수 등에 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4.3. 제도적 위험

제도적 위험은 농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농업경영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체가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농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위험은 농업경영체의 입장

에서는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 하겠다. 예컨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가축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나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 등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4.4. 재무적 위험

재무적 위험은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투자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과다 및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소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위험회피나 위험전가 등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먼저 농업경영자의 철저한 재무관리 노력과 더불어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통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투자를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설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임대를 통한 투자시설의 확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3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발생 빈도와 손실강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과는 별도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금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보유에 관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경영을 통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이외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5. 인적 위험

인적 위험은 농업 생산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농업경영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경영의 특성상 이러한 순수 인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농업경영체는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관련 책임과 권한을 구성원에게 위임하거나 배분을 통하여 농업경영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적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인적 위험에 대한 사후적 관리방안으로써 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적 해이에 따른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익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현실적 요구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6. 책임위험

책임위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위험으로 생산물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선물계약에 따른 책임, 농지임대차 계약관련 책임, 제3자 관련 보증에 따른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경우는 생산물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제3자를 위한 보증에 따른 위험을 들 수 있다. 생산물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타인을 위한 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담보나 보증보다는 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주요 농업경영위험을 자연적 생산 위험, 기술적 생산위험, 순수 시장위험, 가격위험, 제도적 위험, 재무적 위험, 순수 인적 위험 및 손해배상책임위험 등으로 유형화하여, 위험발생빈도 및 위험발생 시 농업경영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의 강도에 대하여 농업연구기관의 전문가 1인 및 농업경영인 2인과의 심층면담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경영체의 위험관리방안으로 위험보유, 위험회피, 위험통제, 보험 및 제3자에의 위험이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농업경영체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농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그에 맞는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체의 경영목표와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의 유형과 규모를 평가하고, 위험관리 수준 및 관리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마련한 후 실행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관리전략은

각 경영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맞게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경영관련위험은 농업경영체에서 모든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서 통제가능한 위험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에서 통제할 수 없는 농업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거시적 위험이나 자연적 위험 등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업경영체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경우에도 보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가 자연적 생산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담보범위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 및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 및 예측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관련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농업경영체의 규모 및 경영형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관리방안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위험에 대하여 농업경영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위험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농업경영인들과의 심층면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부적인 조사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강태훈. (2000). 농산물 가격 위험관리와 발매기거래의 개선방안. *농업경제연구*, 41(3), 97-123.
- 구하서, & 권금택. (1995). *보험학요론*. 서울: 법문사.
- 권오상. (2002). 쌀재배 농가의 위험회피도 계량분석. *농업경제연구*, 43(3), 77-91.
- 김성용, 이상건, & 이영만. (2008). 쌀농가의 위험태도 평가. *농촌경제*, 31(1), 57-75.
- 김용재. (1996). 손보사의 위험관리 이론과 기법. *보험개발연구*, 19, 103-118.
- 김정호, 김창길, 안병일, & 전익수. (2002). *채소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인. (2006). 한국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 & 정영동. (2002). *리스크관리론*. 무역경영사.
- 안병일, & 김정호. (2001). 채소경영의 위험 요소와 재배면적 변동. *농촌경제*, 24(3), 27-46
- 양승룡, & 문진영. (1999). 상품선물을 통한 가격위험관리의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40(2), 57-83.
- 윤진한. (2002). 채소농가 소득변동과 위험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만, 이상건, & 김성용. (2007). 우리나라 쌀 생산농가의 위험관리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4(3), 806-823.
- 정문경. (2008). 한국과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환. (2003).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수출위험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재환, 박준형, & 김태균. (2005). 과수농가의 위험관리 실태. *농업경영·정책연구*, 32(1), 155-170
- 최경환, 박대식, 허장, 박주영, 유지호, 이준섭, et al. (2004). *농작물 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 한낙현, & 김흥기. (2008). *위험관리와 보험*. 우용출판사.
- 황의식, & 이용호. (2008).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石名坂邦昭. (1990). 農業 Risk Management의課題. *위험관리학회지*, 1, 237-249.
- Hardaker, J. B., Huirne, R. B. M., & Anderson, J. R. (1997). *Coping with Risk in Agriculture*. New York: CAB International.
- Huirne, R. B. M. (2002). Strategy and Risk in Farming. *NJAS-Wageningen Journal of Life Sciences*, 50(2), 249-259.
- Greene, M., & Serbein, Oscar N. (1983). *Risk Management—Text & Cases*. Reston, Virginia: Reston Publishing Co.
- Meuwissen, M. P., M, Huirne, R. B. M., & Hardaker, J. B. (2001). Risk and risk manage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Dutch livestock farmers. *Livestock Production Science*, 69, 43-53.
- Meuwissen, M. P. M., Hardaker, J. B., & Huirne, P. B. M. (2001). Sharing risks in agriculture; Principles and empirical results. *Netherlands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9, 343-356.
- Rejda, George E. (2003).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New York: Addison-Wesley.
- Dorfman, M. S. (1998).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논문투고일: 2011. 8. 18

1차수정일: 2011. 9. 2

게재확정일: 2011. 9. 16